

출판인 윤희두와 문고본 전성시대

태평로

김태훈
논설위원



지난주 출판사 범우사 윤희두 회장의 별세 소식을 듣고 10여 년 전 서울 인사동 모임에서 그와 동석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 자리엔 윤 회장과 정진숙 을유문화사 회장, 전병석 문예출판사 대표, 수필가 피천득 선생 등이 참석했다. 이제 고인이 된 그들에게는 뚜렷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모두 1970~80년대 문고본 전성시대를 일군 주인공들이었다. 을유문고, 범우문고, 문예문고가 이들의 손에서 탄생했다. 특히 윤 회장이 펴낸 피천득의 '수필'과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큰 사랑을 받으며 문고본 불에 불을 댕겼다. 윤 회장은 재작년 모교가 마련한 대담에서 범우사를 대표하는 책이 무엇이나는 대학 후배들의 질문을 받고 "피천득 선생의 '수필'과 법정 스님의 '무소유'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오로 확장됐다. 1960년 고작 1600종이었던 신간은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던 1970년 2600종으로 늘더니 1990년 4만1000종을 넘어섰다. 발행 부수 증가는 더욱 극적이어서 1970년 480만부였던 것이 1990년엔 2억4000만부를 돌파하며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 발간된 책이 7290만부였던 것과 비교하면 반세기 전이라는 실로 독서 열기로 필 필 풀린 나라였다.

드라마 같다고도 해야 할 독서 바람을 맨 앞에서 이끈 게 문고본이었다. 무엇보다 가격이 싼 게 요즘 스마트폰처럼

경제성장 추구하던 1970년대 지식을 향한 욕구도 폭발해 지식 대중화에 나선 출판인들 문고본으로 그 요구에 부응해

주머니에 쏙 들어가 휴대하기 좋았다. 1970년대 인기 문고 중 하나였던 삼중당문고 한 권 값은 150~250원이었다. 자랑만 한 그릇 값만 내면 책을 사서 읽을 수 있었다. 당시 학생 신상 기록카드 취미란에 가장 많이 적힌 것이 '독서'였다. 장거리 여행 떠나는 이들이 버스 안에서 읽기 위해 집어든 것도 문고본이었다. 윤 회장은 "경부고속도로가 뚫린 덕에 더 많이 팔렸다"고 회고했다. 신문엔 수백권에 이르는 문고본 리스트를 실은 광고가 연일 실렸다. 해마다 200만부 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 문고도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했다.

장정일 시인은 시 '삼중당 문고'에서 당시 문고본 열풍을 이렇게 노래했다. '열다섯살, 하면 떠오르는 삼중당 문고/ 수업시간에 선생님 몰래, 두터운 교과서 사이에 끼워 읽은' 책, '위장병에 걸려 1년간 휴학할 때 암포젤 엠을 먹으며' 읽고, '개미가 사과 껍질에 들러붙듯 천천히 훑아먹' 듯 음미했으며, '간행 목록표에 붉은 연필로 읽은 것과 읽지 않은 것을 표시' 해가며 독과했고 '방학 중에 쌓아 놓고' 읽었다. 필자도 고교 시절 저녁 자율학습 시간에 교재를 제쳐두고 책에 빠져들곤 했다. 한번은 문고본 '논어'를 읽다가 담임 선생님께 들린 적이 있는데 선생님은 빙긋이 웃더니 "다 읽으면 나도 빌려줄래?"라는 말로 자습 시간 판짓을 눈감아 주셨다.

1990년대 이후 문고본 열풍은 많이 사라졌다. 소득이 늘면서 고급화를 지향하는 시대 정서와 맞지 않게 됐고 독서 인구로 스마트폰에 빼앗긴 것도 큰 이유다. 그렇다 해도 당시 출판인들의 열정은 빛바랜 역사일 수 없다. 지금도 범우문고를 비롯해 책세상문고, 살림지식총서, 시공 디스커버리총서, 민음 산살문고 등이 1만원 안팎의 저렴한 가격에 내용 충실한 문고본을 낸다. 문고본은 우리가 무지와 가난을 딛고 펼쳐 일어나던 시기, 지식 대중화 가치를 높이 들었던 출판인들의 사명감이 빛어낸 소중한 결실이었다. 출판인 윤희두의 생애가 그 숭고했던 열정을 되새기게 한다.

김준의 맛과 삶 [168]

고창 김 장어 파스타

2023년이 저물어 간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행을 하려는 사람이 많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여행지 선택 기준 top 10'을 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볼거리를, 높아질수록 음식을 고려한다. 볼거리, 즐길 거리와 함께 지역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을 여행지 선택의 기준으로 꼽는다는 의견이다. 아예 특별한 음식을 찾아 떠나는 여행도 늘고 있다. 이제 싱싱한 수산물만으로는 젊은 사람을 유혹하기 어렵다. 최근 전북 고창에서 만난 음식에서 그 가능성을 엿보았다.

차려냈다. 고창산참치와 유기농 쌀에, 곰소만 새우를 더해 '리소토'를 만들었다. 여기에 고창 지주식 물김과 고창 풍천장어를 올린 '김장어 파스타'를 더했다. 또 고창에서 자란 각종 채소에, 곰소만 갯벌에서 채취한 바지락과 동죽에 흰 살 생선을 더한 '부아베스'를 추가했다. 샐러드와 음료도 고창의 재료로 만들었고, 고창소금을 올린 '솔트카리멜' 로마 무리했다. 이 정도라면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해양수산부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창의 한 업체가 준비한 자리였다. 당장 고창 식당에서 이러한 음식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고창에서 나는 식재료를 이용해 고창



갯벌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였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류세 식탁'이 주목받고 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식생활로 블루푸드에 관심이 높다. 연안 습지 해양 생태계의 탄소 흡수 능력은 육상 생태계의 수십 배에 이르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내가 선택한 가족 여행이 지구를 살리고 미래 세대를 건강하게 한다면 여행지로 바다와 지구를 살리는 가치 여행을 하면 어떨까. 그것도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말이다. 이런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한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장제원 불출마, 與 의원들 나라 위한 길 숙고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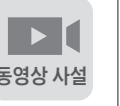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친윤석열계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힌다. 지역구에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 불출마를 결정했다. 정부 탄생에 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결심을 한 것이다.

많은 국민은 여당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 정권을 잡자마자 당 대표와 대통령 측근들이 집안싸움을 벌였다. 다름은 지금까지 이 여저 당 대표 출신이 탈당을 한다고 한다. 강서구정장 보궐선거 참여 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에게 '희생'을 권유한 것은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사자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 희생하는 것 또한 국정을 책임진 여당 의원이 감수해야 할 몫이다. 장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

면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것이 그런 뜻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4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을 맞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천막 당사를 치고 소속 의원 수십 명이 불출마를 결심하는 희생을 통해 민심을 가리았다고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지금 상황이 그때 못지않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지만 의원들은 "소는 누가 키우냐" "나 외엔 우리 지역구에서 이길 사람이 없다"며 희생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완패하면 윤석열 정부는 남은 3년 동안 식물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경제 안보 사회 위기를 극복할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장 의원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민의힘 인사들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당, 당보다는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때다. 윤 대통령도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동영상 시청

이제는 익숙해지기까지 하는 '운동권 내로남불'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11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탈당을 고려 중인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를 "전형적인 사쿠라(변절자 노선)"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 등을 향해 "지금 시대 정신은 윤석열 독재를 견제하라는 것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당내 문제에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사쿠라"라고 했다.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의원은 운동권 전력을 바탕으로 민주당에 영입돼 대선 국회의원에 이어 2002년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까지 됐다. 80년대 운동권의 대표적 인물이었지만, 같은 해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정몽준 후보의 국민통합21로 당적을 옮겨 "양지만 좇는 사쿠라"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쉽게 당을 옮겨 '사쿠라' '철새'라는 비판을 받았던 그가 다른 사람의 탈당을 '사쿠라'라고 맹비난하는 것을 보니 철면피의 내로남불이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그의 "검찰 독재와 싸우는 엄중한 시기다. 무조건 무조건 싸우고, 싸우며 물쳐야 한다"는 발언은 과거 북한을 거론하며 민주주의를

억눌렀던 통치자들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김 의원과 같은 시대 운동권이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을 "어린 X" "건방진 X"이라고 비난했다.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국회의원이 된 이들 운동권은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60대 이상 국민을 '뇌가 썩었다' '투표 안 하고 쉬러'는 등으로 매도했다. 그러나 이제 자신들도 나이가 들자 젊은 사람에게 "어린 X" "건방진 X"이라고 한다.

역시 운동권 출신의 조국 전 법무장관은 학자 시절 SNS를 통해 온갖 좋은 말을 하며 저명 인사가 됐지만, 법무장관 검증 과정에서 이투 해이될 수도 없는 내로남불이 드러나 사람들이 혀를 찼다. 민주화 과정에 공을 세운 이들은 자신들은 무슨 행동과 말을 해도 정당하다는 큰 착각에 빠진 듯하다. 운동권은 정의롭기 때문에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비뚤어진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는 이토록 내로남불을 반복할 수 없다. 이제 이들의 내로남불에 익숙해질 지경이다.

'친푸틴' 반성한 獨 사민당, '친김정은' 민주당은?

독일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이 과거 자신들의 친푸틴 정책에 대해 "평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사민당은 지난 10일 폐막한 전당대회 결의문을 통해 "러시아와 경험을 강화하면 러시아가 민주화할 것이란 당의 가정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러시아가 주권국을 정복·억압하는 한 관계 정상화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어 "군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안보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무기 산업의 비효율 극복을 강조했다. 재무장과 군비 확충을 통해 유럽 방어에 앞장서겠다는 얘기다.

사민당의 친러 정책 뿌리는 1970년대 브란트 총리의 동방 정책이다. 브란트 동방 정책은 단순한 친러시아가 아닌 국가 전략이었다. 그러나 사민당은 그 후 친러시아, 친푸틴으로 기울면서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에 나섰다. 슈뢰더 총리 시절인 2002년엔 탈원전법까지 만들었다. 이에 따른 에너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독일을 잇는 초대형 가스관 사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유럽 전체가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게 됐다. 이후 푸틴은 결핍하면 가스관 밸브를 잠그며 유럽을 농락했다. 사민당의 친푸틴, 친러 정책이 러시아 민주화하는 커닝 푸틴의 에너지 무기화 함정인 러시아-독일 협력 이후 유럽에선 '독일 책임론'이 들

끓었다.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독일 기업들은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유럽의 경제 엔진으로 불리던 제조업 강국 독일은 이제 '유럽의 병자'란 조롱을 받는다. 사민당의 반성은 이런 안팎의 지적·비판을 수용한 결과일 것이다. 독일 사민당이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책임 정치라는 면에서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와 비교하면 놀랍고 부러운 풍경이다.

한국 민주당은 북한을 도와주면 북이 개혁·개방에 나서고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이른바 햇볕정책을 20년 이상 추종하고 있다. 20여 년 전 100만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거의 망해가던 북한은 민주당 정권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살아나 핵 개발에 성공했다. 민족의 미래에 핵 구름이 드리워졌는데도 햇볕정책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변호하고 옹호하면서 친김정일, 친김정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중국·러시아와 같은 전체적 독재 집단과도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친북, 친중, 친러시아 정책과는 달야야 한다. 민주당 대표단은 2006년 북이 핵실험을 한 직후 북한을 방문해 북 정권 인물들과 춤을 추기도 했다. 민주당으로부터 '햇볕정책'으로 국민을 핵 위협 아래 놓이게 했다'는 반성을 듣게 된다면, 그때 김정은도 생각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하나 잡아넣지 못하다니... 이게 나라인가?

판사를 때문에 나라가 나라 아니다 | 한동훈, 정계진출 전(前) 이재명 잡아 넣으라

뉴데일리
newdaily.co.kr

대답하라, 윤석열 정부

오늘의 한국 정치의 가장 흉물스러운 증상의 하나는 [자칭 진보]의 끝없는 추락이다.

[이재명 현상]은 그 추락의 총체적 결과물이자, 집약이고 상징이다.

2023년이 다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는 이 흉악한 현상에 일정한 법적 단안(구속)을 기필코 내야만 한다.

대답하라, 윤석열 정부. 이재명 하나 잡아넣지 못하는 나라가 나라인가?

[문제인 5년]과 [이재명 현상]... [나치 같은 죄]에 만들다

[문제인 5년]과 [이재명 현상]으로 인해, 한반도 남과 북 양쪽은 다 프랑켄슈타인처럼 흉해졌다.

휴전선 이북엔 [세습 사교(邪敎)] 집단이, 휴전선 이남엔 또 하나의 [총말론적 광신(狂信)]이 온통 휩쓸고 있다.

공포다. 악마다. 염기다.

흑백처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들

이로 인해 이 땅의 ☆ 지성 ☆ 지식 ☆ 과학 ☆ 문명 감각 ☆ 예지(叡智) ☆ 양지(良知) ☆ 근대 의식(modernity) ☆ 아름다운 추구 ☆ 격조 높음 ☆ 깨어있는 개인/시민/국민 의식... 같은 것들은 빈사(餓死) 상태에 빠졌다.

그 대신 흉수처럼 넘쳐흐르는 악성 저질 풍조가 있다. ☆ 막돼먹음 ☆ 비천함 ☆ 막가파 ☆ 조폭 문화 ☆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다하기... 따위가 예컨대 그런 것들이다.

음습한 신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한국 극좌파

오늘의 한국 자칭 진보는, 처음엔 권력 엘리트의 추락에 대한 젊은이들의 도덕적·정치적·문화적 저항인 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시점부터는, 일종의 밀교(密敎) 집단처럼 안으로 안으로 기어들었다.

음습한 지하에 서식하며, 서로 감시하고 파문하고 짓누르는 사이비 종교 집단.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신판 구세주의 열두 제자라도 됐다는 양, 터무니없는 선민(選民) 특권 의식에 젖었다.

그들 1980년대 한국 극좌파는 [근대 계몽사상 + 문명개화에 등 돌린 [수구반동 킬트(cult)] 때였다. 광신적 사이비 종교 말이다. 그들은 오늘에 와서도 시진핑 푸틴 [민족파시즘]과 한패가 돼, 21세기 [글로벌 문명]에 한사코 저항한다.

[문제인 5년]은 이상아뿔했다

이런 퇴행적인 구습(舊習)을 안은 채 지난 문제인 5년은 온갖 해괴한 짓거리들을 다 했다.

- '김여정이 노벨대탈했다' 소리를 듣고 불과 4시간 만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여정 하명법]이었다.
- 사실상한 [서해 공무원이] 월북을 기도했다고 조작했다.
- 월성원전을 파괴했다.
- 통계를 조작했다.
- 탈북 어부를 강제 복송했다.
-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 전 세계를 돌며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했다.
- 대북제재 중단, 종전선언, 유엔사 해체를 강변했다.
- 소위 9.19 군사합의로 우리 울타리만 허물었다.

이재명은 문제인의 삼쌍둥이

이 연장선에 이재명이 그의 온갖 누추한 범죄 혐의들과 함께 떠 버리고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정계에 나오기 전에, 먼저 이재명부터 확실하게 잡아넣어라! 아무리 [김명수 키지] 탓이라고 하지만, 검찰도 너무 오래 끌었다.

다시 한번 묻는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

조국의 손흥민 모욕... 김의겸이 한 건 '웃' 아니라 '백태광', 바로 퇴장감 [이양승 칼럼]	민주당엔 '민주' 없다... '이재명 독재'만 남았다 [이양승 칼럼]
-------------------------------------------------------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12월 9일 게재 되었습니다.